

선군 태양의 축복속에 내 조국 무궁번영하리

태양은 오늘도 선군조국을 밝게 비추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환하게 웃으신다. 싱그러운 우리의 선군력사의 나날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군민은 위대한 선군태양의 모습에서 천백배의 힘을 가다듬으며 필승의 신심과 락판에 넘쳐 영광찬란한 태양을 확인하고있다.

선군의 그 길에서 언제나 승리하라고, 무궁도록 영광떨치라고 따뜻한 축복을 보내주시는 영원한 조선의 힘, 위대한 장군님 이시다.

우리 장군님 하고 추억의 문을 열면 두해전 선군철의 사연깊은 이야기 가 새겨진다.

그날 전선동부시찰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선군철을 맞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격동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잃고 처음으로 이별을 맞이하고보니 한평생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신 장군님이 더욱 그리워져 눈곱이 찢어 옵니다.》

장병들의 눈가에도, 장군님을 초소에 모신 자랑을 안고있는 어제날 병사였던 세 세대 지휘관들의 눈가에도 뜨거운 것이 고여올랐다.

자신의 모든것으로 여기신 조국, 사랑하는 인민을 그 어떤 원수도 건드릴수 없게 하시려 아버지장군님께서 한평생 견고걸으신 선군길을 뚫어주시고 있을수 없는 그들이었다. 온 나라 인민도 격정으로 세차게 설렘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추억이 얼마나 많고 많은가.

1990년대 후반기는 나에게 있어서 제일 잊을수 없는 나날이었습다라고 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오늘도 울려퍼진다.

격정없이 돌이켜볼수 없다. 얼마나 준엄한 나날이었던가.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 경제난관과 자연재해가 앞길을 막아주고 곳곳에서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이 폐부부 느껴지던 그때 우리 장군님의 심중에 얼마나 많은 사연이 고백했으랴.

항일혁명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조선을 구원할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 죽음의 나락에서 영영 일어나지 못했으리라고 하신 라자구등만에 서세시는 심정이었고 수령님께서 대지의 포위와 축환의 고통을 《반일전투》로 이겨내신 천군명의 눈보라 소리를 듣고계시는 심정이었다. 그러한 력사의 순간에 우리 장군님 계시었다.

선군은 곧 자위라고 준엄하며 애국, 애족 이!

인민 선봉과 의지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큰결음을 다락초소로 찍으시어 선군정치가 조선의 후손대대의 전략적로선



불면불유의 선군혁명령도로 영웅적조선인민군을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주제90(2001)년 8월

임을 선언하시었다. 그때부터 우리 장군님의 주소는 사생결단의 전진길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인민이 다는 알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 선택하신 선군의 그 길이 얼마나 시련에 찬 고행의 길인지.

오직 한분 우리 장군님께서만이 다 내다 보시었다. 인민이 고생하고 경제난관이 중첩되지만 반드시 이 길로 가야 승리의 종착점에 도달할수 있다는것을 그때 벌써 확인하고계시었다.

이 나라의 무수한 길들마다에, 굽이굽이 뻗어간 령들마다에 아버지장군님의 선군의 자욱이 찍혀있지 않는 곳 있는가. 이른새벽에도, 길고깊은 밤에도, 눈비내려도, 찬바람 사정없이 몰아쳐와도 우리 장군님께서 족잡과 꿇기발을 드시며 인민군인들을 찾아 야전차를 달리고 또 달리신 그 모든 길들을 하나로 이어놓으면

그것은 그대로 그이의 선군혁명로정도이다. 그 나날의 수많은 사연들을 이 작은 글에 다 담을수는 없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 대하여 생각할때면 선군의 상징 철령이 뚜렷이 솟아오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는 지금까지 철령을 넘어 최전연군부대들을 시찰하면서 선군혁명령도를 해왔다고, 철령은 선군혁명령도의 상징이라고, 누구나 철령을 어서서는 안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장군님 언제나 잊지 못하는 철령, 철령은 지도우에 평범하게 표시되어있는 령이다.

하지만 아버지장군님께서 위대한 혁명명세의 나날 제일 많이 넘나드신 선군의 상징이기에 모두가 잊지 못했다. 20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으신 날은 진논까비가 쏟아진 뒤에서 가뜰이나 험한 도로상태가 많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이 전진길을 알아낸 직접 차를 몰아보아야 한다고 하시며 굽이 운전대를 잡으시었다. 야전차 행렬이 철령을 가까이하자 일군이 더는 그 태로 보고만 있을수가 없어 철령에서마는 운전대를 넘겨주실것을 간청하였다. 철령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운전사들이 번속기를 1단에 넣고서야 넘었다고 하여 《1단 고개》라고 불리우는 험한 령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공언한 걱정을 한다고 하시며 더욱 질풍같이 차를 몰아 철령의 굽이길을 치달아오르시었다. 이렇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밤에도 새벽에도 오직 조국수호의 사명감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처럼 험한 철령을 수없이도 넘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길에서 조국수호의 생새김이 아아났던가. 철령에 불빛이, 햇빛이 가득 차던지는

어느해 4월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나라가 태양결분위로 흥성이는 이날도 철령을 넘고 계시었다.

《장군님, 여기에 철쭉꽃이 피었습니다. 아직 철쭉꽃이 필 때가 아닌데 장군님께서 오실줄 알고 때이르게 피어났것 같습니다.》 감격에 젖은 목소리가 울리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굽이굽이 철령의 곳곳마다에 진달래와 어울려 아름답게 피어난 철쭉꽃들을 바라보시었다. 그러시고는 철쭉꽃은 원래 진달래꽃이 피었다가 필 때가 되어야 피는 꽃인데 이렇게 때이르게 피어났다고 말씀하시었다.

철령의 철쭉, 우리 장군님께서 있어서 철령의 철쭉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해방의 새봄을 앞당기는 길우에 만발하였던 백두산의 진달래처럼 선군승리의 새봄을 말해주는 상징이였다. 철령의 높고낮은 산밭들을 넘나드시며

선군조국을 이끄시는 우리 장군님께 언제나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이 철령졸업증을 드리고싶은 소원을 아뢰 인적이 있었다.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었던가. 나의 마음은 언제나 조국의 방선을 믿음직하게 지키고있는 병사들에게 가있습다. 나는 앞으로도 철령을 계속 넘을것입니다!

하여 철령졸업증을 팔내 드리지 못한 우리 인민이다. 무수히 솟아있는 선군의 산악들중의 한 령을 놓고도 이 나라 인민의 만복이 어떻게 꽃피었고 강성변영의 새 력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를 말할수 있는것이다.

지난 7월 전승절을 며칠 앞두고 고산파수능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의 받치기가 굽이 굽이 어려워는 철령아래에 대규포수능장이 건설된것은 그 의미가 참으로 크다고 하시면서 세계급지의 청춘파원으로 펼쳐진 고산파수능장의 력사의 첫 페이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쓰시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진정한 위대한 장군님 선군정정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치시며 뿌리고 가우신 행복의 씨앗들이 오늘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향기롭기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령을 넘나드시던 나날에 태어나 만사함을 울리던 장군님은 전선으로 아이들은 야영소로라는 노래가 사랑, 미래사랑도 담고서 더 높이 올려나온다. 동서천리로 넘나들던 바람도 멈춰서면 마시령, 우리 장군님 넘나드신 이곳에 희한한 스키장이 선군시대의 맛을 자랑하며 뻗어내렸고 장군님께서 야전차의 차창으로 내다보시던 동해에서는 《바다 만풍가》의 노래소리가 사회주의바다 향기를 실고 들려어온다.

철령만이 아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6,000여리의 눈보라강행군길, 성강과 라남, 강연을 비롯하여 온 나라

방방곡곡으로 이어가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인공지구위성의 성과적발사와 지해시스템의 성공과 같은 력사의 기적들이 다채만으로 이루어져 우리 조국을 세기의 상상봉우에 올려세웠다. 위대한 장군님 해초우신 선군길이 있어 오늘의 행복이 있다! 이것이 뜻깊은 선군절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사들이 웨치는 력사의 진리이다.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후승리에로 나아가는 천대우에 계신다. 사람들아, 오늘도 당도지면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을 다시금 삼가 우러러보시라. 우리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선군조선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다. 태양같이 밝게 웃으시며 우리에게 끝없는 격려를 보내주신다.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선군의 길로 여세계, 줄기차게 변함없이 나아가라고, 그 길에 조국의 강성변영이 있어! 본사기자 백영미

선군의 길에 빛나는 우리 장군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렇게 기억하고 뜨겁게 말하고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언제나 조국수호전의 최전방에 계신 최고사령관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선군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이고 혁명실천이였으며 장군님의 정치리념이고 정치방식이였습니다.》

언제인가 전선동부의 최전방인 351고지를 시찰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이 자신께서 351고지 최전연초소까지 나갔다고 걱정한다는데 일 없다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일 하나도 위협하고 싶지 않다고 안 가신적이 되였는가고, 수령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을 위해 험한 길을 걸으시였지만 언제나 한걸음이 나쁘다고 안 가신적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다 걸으리라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주 그 단 말씀으로 자신의 신변안전을 걱정하는 수령들과 일군들에게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시었다.

사실상 준엄하였던 조국수호전의 길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신 최고사령부의 위치는 항상 전연에서 멀리 떨어진 후방이 아니라 최전방이였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의 작전적의도와 지휘를 보장하는 전사의 직접적인 보좌단위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자신께서 지니신 력사적사명과 책임감으로부터 출발하시어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는 문제로부터 전사들의 생활상문제가 이르기까지 모든것을 직접 현지에서 료해하시었다.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과 식견, 조직력으로 어떠한 중대하고 복잡한 일도 가장 신속히, 정확하게 처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시찰은 그러한 일상적인 사업의 연장이었다. 그것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신 특출한 실력과 정력으로서만 실행할수 있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혁명에 자신을 강그리 바치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제나 최전선에 계시었다.

여기에는 우리 장군님께서 시종일관 전지하여오신 하나의 사업준칙이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에 앞장서서 아버지수령님의 사업을 보장해드리시던 나날 자신을 항상 최전선에 세우시고 모든 사업을 해나가지였다. 장군님께서는 스스로 지니신 그의 무를 한평생 다하시였으며 전선사령부라는 말을 뜨겁게 위우시며 자신의 사명과 책임을

자각하곤 하시었다. 하기에 텔레비전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전선시찰소식을 시청한 인민들이 장군님께서는 왜 최전연에까지 나가시였는가고 가슴아파한다는 보고를 받으시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위하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은 리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입니다. ...

유사시가 아닌 지금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연을 찾으시는 것만은 제발 그만두실것을 간절히 아뢰는 일군들에게 그이께서는 전연지대뿐아니라 그보다 더 험하고 위험한 곳에도 가보아야 한다. 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언제나 우리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충실할것이라고 단언하시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최전방에 계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을 돌이켜보면서 그이께서 스스로 정하신 위치에 얼마나 희생적이며 애국적인 정신세계가 깃들어있는가를 절감하고 있다.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최고사령관이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적아대결이 첨예한 곳에서 최고사령관이 최전방을 중흥무전하며 나라의 안전을 위한 모든 사업을 직접 조직 지휘한 예는 통사고급이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분대 앞마당에 크게 만들어 세워놓은 구호판에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길사용위를 생명을 옹호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맹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1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구분대 앞마당에 크게 만들어 세워놓은 구호판에서 눈길을 멈추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길사용위를 생명을 옹호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맹 앞장에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 이 말은 불세출의 선군명장 김정일동지의 절세의 위인상을 세 세상에 걸조높이 전하고 있다. 본사기자 박철

선군이 전하는 잊지 못할 지명들

오성산, 전진 있을수 없다. 적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이 국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기 억수로 내린 소나비로 하여 쪽쪽 미끄러지는 승용차를 한치런치 미끄러지던 때를 기억하시어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을. 인류력사를 돌이켜보면 전방지휘소를 찾아 전진길을 달린 군사령관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어도 나라의 령도자,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 최전방의 자그마한 지휘소가 위치한 험산오지를 찾았다는 전설같은 이야기는 없다.

152굴이의 오성산칼벼랑길은 오늘도 새겨준다. 우리 장군님의 선군길이 얼마나 간고하였는가를, 사회주의 내 조국

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를. 판문점은 적이 분리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해있는 곳이다. 이 땅의 가장 예민한 열점중의 최대열점지대인 이곳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찾아오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보았겠는가. 이른예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없는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판문점초병들, 눈물을 흘리며 두손을 높이 쳐들고 환호하는 군인들의 얼굴마다에 위대한 장군님을 위해서라면 한몸이 그대로 총폭탄이 될 굳은 의지가 비껴있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었다. 오늘 인민군대에서 가장 중요

한 구호는 노예가 되겠는가 아니면 자주적인민, 자주적군위임이 되겠는가 하는것이다. 나는 동무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당부한다. ... 판문점은 오늘도 위대한 장군님의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정에 대하여 음변으로 말해준다.

조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패속정을 라시고 초도의 병사들을 찾아가실 때의 바다날씨는 더없이 험하였다. 배의 진동으로 활영이 재들까지 파괴되었다는 사실이 그때의 사나운 바다날씨에 대하여 짐작할수 있게 한다. 허나 짐재같은 파도가 기승을 부리는 바다를 바라보시며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소대장의 수준이 소대군인들의 수준이다. ...

중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소대장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다시한번 깊이 깨닫게 하는 귀중한 가르침이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동무들이 맡고있는 전투임무가 중요하다고, 동무들을 맡고있는 전투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전투준비를 철저히 했다. 소대장들의 역할을 높여야 소대가 강화되고 소대가 강화되어야 중대가 강화될수 있다. 소대장들은 훈련과 전투준비, 물질문화생활을 비롯하여 모든 일에 소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소대장들이 자기 임무를 원만히 수행한다면 정치사상적으로,

본사기자 정순학

밤 하늘의 별이여

그리움을 안고 정서있게 (J=64)

작사 차호근
작곡 강철봉



1. 밤 하늘빛나는 정다운-별 빛 내-마음한없이 설레게하-네



그 이가계신곳 그어데-일 가 원 수님그품이 못내그립네



간 절한이마음 별과속삭이 며 원 수님품으로 달리어가네

2. 이밤도 우리를 그려보시며

잠 못 드실 그 눈빛 어리어오네

별처럼 많은 밤 지새우시며

키워준 그 사랑 잊을수 없네

(후렴)

3. 유정한 저 별빛 바라다보며

이 가슴에 가득히 넘치는 생각

그리운 원수님 안녕하시라

이밤이 새도록 소원 아뢰네

(후렴)

기술을 알고 인재들을 발동해야 한다

안변군 사평리당위원회 사업에서

얼마전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여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안변군 사평리당 농장을 찾았다.

조건으로 놓고 볼 때 남보다 별로 유리한데 없었지만 농장이 해마다 농업생산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앞서나가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관리위원장인 김영식동무는 이것이 대답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서 리당일꾼들에 대한 자랑을 펼쳐놓았다. 3년전 리당비서가 새로 임명되었던 때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었다.

《제가 리당비서입니다. ...관리위원장동무, 마음껏 설게하십시오. 뒤에서 힘껏 밀어주십시오!》

리당비서 송봉운동무의 첫인상에 관리위원장도 반가운 기색을 지냈다.

그날 두 일꾼은 손을 굳게 잡았다. 아버지가장군의 불멸의 영도업적에 뜨겁게 어여있는 농장을 본때있게 가꾸자고 약속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과 기술의 시대,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촌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고 농업의 과학화, 현대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나가야 합니다.》

기계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결의목표에 반영하던 때의 일이다. 새 기술혁신과제 가운데는 종자선별기도 있었다.

지난 시기 로력과 자재, 식량이 많이 들던 선별공장을 없애고 새롭게 해야 하였다. 그 기술혁신과제가 더없이 긴박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농장의 일꾼들은 진지한 토의끝에 그것을 3대혁명붉은기쟁취를 위한 기술혁신결의목표의 한 조항으로 올렸다.

리당비서는 며칠밤을 새우며

《초기에는 수행기일이 오래 걸릴것이라고 타산했었습니다. 그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나... 그런데 리당비서동무가 어떻게 기술혁명의 지혜와 열정을 발휘했는지 예상외로 짧은 기간에 결실을 맺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관리위원장은 한가지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과제수행문제가 일정에 오른 때였다. 어느날 저녁 다짜고짜로 팔목을 잡아끄는 바람에 기사는 영문없이 리당비서의 사무실로 갔다.

《왜 이렇습니까?》

《기사가장동무, 날 제자라고 생각하고 좀 가르쳐주세요. 선별기와 관련한 리해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초학도가 된 심정에서 허심하게 배우려는 리당비서를 보며 기사가장동무는 난감한 기색을 지냈다. 하지만 리당비서는 순순히 풀려설 잡도리가 아니었다. 결코 측중에서가 아니었다. 사연이 있었다. 이 일이 있기 전의 어느날이었다.

관리위원장에서부터 곧 종자선별기를 창안하기 위한 전투를 벌여야 할것 같다는, 기술에 능한 배창경로인에게 그 주역을 맡겨야 할것 같다는 말을 들은 리당비서는 그걸로 수리본조에 나갔었다. 곧 배창경로인을 만났다. 철심이 지났으나 그는 청춘의 기백과 열정을 안고 헌신하고있었다.

리당비서가 그에게 종자선별기를 창안해볼 생각이 없는가고 물었지만 그로인은 리당비서의 물음에 쉽게 대답을 주지 못했다. 생각을 좀 골려보아야 할것 같다는 것이었다.

그날 리당비서는 당일군이 기술에 밝아야 기술자들의 창조적 열정을 잘 발휘할수 있고 기술행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도 바로할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었다. 그래서 초학도가 되기로 결심한 것이다. ...

리당비서는 며칠밤을 새우며

값 높은 평가속에 빛나는 일터

평양 어린이 식료품 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온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 열정을 세차게 일으켜 양양된 애국의 힘,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사망의 왕자라는 시대어와 더불어 온 나라 어린이들, 학생들에게 당의 온정을 뜻깊게 이어주는 2중3대혁명붉은기 평양어린이식료품공장이

얼마전 우리는 공장을 찾아 취재길에 올랐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공장에 들어서니 생선문화, 생활문화가 확고히 선 공장,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이 뜨겁게 맥박치는 공장이라는 느낌이 확연히 느껴졌다.

공장이 조업한지 수십년이 흘렀지만 모든 건물들이 일신되어 새로 일떠세운 공장의 구내에 들어선것만 같았다.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도 싱싱한 잔디밭들, 가문비나무, 전나무, 총비나무, 고양나무 등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구내를 둘러보노

라니 기분이 청신해지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바로 여기가 주제 90 (2001)년 7월 8일 공장을 찾았을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후식일에도 일터에 달려나와 후대들을 위해 자신을 목숨까지 바친 참으로 훌륭한 애국자, 당의 충신들이라고 하시면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수고를 거들거들 평가해주신 영광의 일터이다.

《미레를 위하여 더 많은 맘을 쏟라!》

이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장군님을 모시였던 그때처럼 공장의 생산자들은 오늘도 설비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생산문화, 생활문화에서도 전공의 모범을 창조해나가고 있다.

훌륭한 애국자, 당의 충신들! 위대한 장군님의 이 값높은 평가속에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비껴있다.

공장구내의 정면에 환하게 모셔진 아버지 수령님의 모자이크벽화와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세세년년 깊이 전하는 현저치 않은 벽화들이다. 서민이 공장 생산자들의 정

신세계를 들여다볼수 있다.

유난히도 하얀 빛을 내는 화강석비타와 들깨단우에 이 공장로동계급의 보석같은 총정신 시로까지의 안락은 참으로 정갈하다.

무심히 보지 않는다.

애기젓가루, 영양양파, 각종 낱새가루, 다시마가루, 물고기가루 등 정미도와 맛과 영양이 풍부한 타락아스, 유치원어린이들과 소학교, 중학교학생들의 성장발육에 좋은 콩유유와 콩산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고 기대를마다에 만가등을 걸어 아 한다.

더우기 이곳 생산자들의 파란수가 자식들을 거느린 어머니들이고 한가정의 주부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믿음으로 충직하고 단란한 가정의 여가시간도 마루어가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보다 영양가높은 젓가루제품을 펴 생산해내면서 생산문화에서도 전공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생산문화가 확고히 선 공장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질 또한 높은 수준이다.

애기젓가루제조장에서 생산되는 젓가루를 하나만 놓고보자. 지금 이 직장에서 생산되는 애기젓, 영양젓에 대한 수요가 날로 많아지고있다.

아버지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의 품으로 세상에 제일 훌륭한 애기젓가공품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직장장 김옥선동무와 김순희동무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바친 밤과 맑은 그 열마진지 모른다.

보람찬 창조적 나날속에 이 직장에서 최근년간에 생산한 애기젓으로 애기들을 키운 어머니들속에서는 우리 것이 제일이라는 호평이 나오고있다.

공로로 만든 우리의 젓제품이 다른 나라 제품보다 더 훌륭하다는 확고한 인식을 사람들속에 심어준 이들이 바로 당의 온정을 뜻깊게 이어주는 이 공장의 생산자들이다.

이런 훌륭한 어머니들이 공장의 주인으로 서있기에 사랑의 왕자는 어제도 오늘도 조국의 미래를 위해 바쳐지는 당의 온정을 노래하며 거리와 마을들을 달리고있다.

본사기자 강명천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만포 종이 공장에서

만포종이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이 종이제품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삼년전 인민경제계획을 220%로, 7월 인민경제계획을 12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학용품업의 로동자들도 인체기, 재봉기, 절단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이며서 학습장, 사무용기, 단양장을 비롯한 종이제품생산에 매일 150%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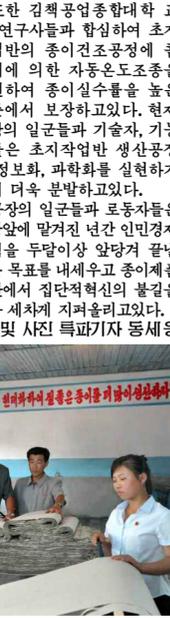
여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창의고안은 초지작업반의 종이생산공정에 받아들임으로써 종전에 비하여 종이의 질긴성이 더욱 좋아지고 걸면

이 보다 매끈해졌다.

또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합심하여 초지작업반의 종이건조공정에 컴퓨터에 의한 자동온도조종을 실현하여 종이질수를 높은 수준에 보장하고있다. 현재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초지작업반 생산공정의 정보화,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다.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공장앞에 펼쳐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두달이상 앞당겨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종이제품 생산에서 집단지역의 불꽃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동세웅



신의 주법랑철기공장과 로동자들이 법랑철기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있다. 공장에서선 직장들과 작업반으로 사회주의 경쟁을 힘있게 벌리며 지난 7월말까지 수십만개의 법랑철기를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신의 주법랑철기공장을 잘 돌리 인민들에게 법랑철기가 많이 차려지게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옹호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

들고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들은 정초부터 법랑그릇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자재인 김순현, 기사장 리현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자체보장사업을 앞세우고 교차생산조작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공장참모부에서는 철관과 철물을 비롯한 자재보장을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교차생산규율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왔다.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공장당조직에서는 화신선진, 화신선동을 드세게 들이대면

원료의 국산화를 위한 노력

설비제작과 조립을 기한전에 끝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었다.

공정설계가 완성된대 맞게 생산전물을 개진하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공장일꾼들이 앞장에서 대충을 불러일으켜 건물개건공사는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공장에서선 연이 각종 탕크와 반응기, 응축기 등 설비를 제작, 설치하는데 달려붙었다.

자재인, 기사장을 비롯한 공장의 일꾼들이 앞장에서 걸린 문제를 제때에 풀어나감으로써 설비제작과 설치전투도 기한전에 끝나고 시운전이 성과적으

로 진행되었다.

철강생산의 마감공정을 맡은 작업반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곳 작업반원들은 제품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이해 줄을 높일수 있는 전장을 열어놓았다.

특파기자 리승철

최우수상을 받게 된 비결

선교편직공장 일꾼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뿌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합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제 8차 평양제 1백회점 상품전시회에 참가한 선교편직공장의 눈길을 끈 전시대가 있었다.

남녀사조, 운동복, 녀성들의 기호에 맞는 속옷을 비롯한 28종에 7만여점에 달하는 여러가지 색깔과 형태의 상품들이 진열되어있는 선교편직공장의 전시대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상품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 마음에 드는 옷을 사겠다고 부비는 사람들, 상품마대에 새겨진 공장의 상표를 보며 감탄하는 사람들... 인민들의 호평속에 제 8차 평양제 1백회점 상품전시회에

최우수상을 수여받은 이 공장로동계급의 숨은 노력과 땀이 깃들여있었다.

《우리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편직옷에 대한 인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 종합하는 과정에 시대적미감에 맞는 수직종의 새 상품들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최우수상을 받게 된 비결을 두고 공장기사장 박승룡동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새 제품개발은 공장에서 해마다 꾸준히 진행하는 사업이지만 지난해부터 그 내용과 형식이 보다 이채롭고 새로워졌다고 한다.

공장의 일꾼들이 새 제품개발에서 특별히 힘을 넣은 문제의 하나가 색깔문제였다.

기리물 오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처음으로 안겨오는것은 그 사람의 옷 색깔이다. 특히 우리 사람들은 온근구하면서 더 고상하고 선명한 색깔들을 좋아하며 많이 요구한다. 공장

의 기술자들과 염색작업반 로동자들이 수직체재의 실험을 거듭하면서 서로 다른 천의 질에 따르는 염색방법을 하나하나 완성하고있는데 성과가 크다고 한다.

공장의 일꾼들이 새 제품개발에서 중시한 또 하나의 문제는 유행태를 끊임없이 개선한 것이다. 공장에서선 시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편리성과 미학성이 보장된 다양한 유행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새로 개발된 제품을 규격화하는 사업 그리고 그것을 부단히 갱신하는 사업도 동시에 밀고나와 성과를 거두고있다. 새 제품개발에서 제일 중시한것이 바로 일꾼들이 인민들의 수요를 장악하는 사업이었다. 공장의 일꾼들은 평양제 1백회점회를 비롯한 여러 상업대회를 통하여 공장상품들에 대한 리용자들의 평가도 정상적으로 들어보고 새로운 색깔과 형태에 대한 그들의 요구도 참고하면서

새 제품개발을 보다 심도있게 벌려나가고있다.

한마디로 인민은 모든 기준의 선봉이라고 박승룡동무는 힘을 주어 이야기하였다.

그의 이야기에 우리는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를 단순히 경제실무적인 사업으로가 아니라 인민에 대한 편파적 리용, 태도제로 보고 끊임없이 사색하고 탐구하며 실현해나가는 이 공장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진취적인 일본색을 엿볼수 있었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지금 편직공장들호상급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를 위한 경쟁바람이 세차게 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제품들을 더 쫓게, 더 많이 생산해내기 위해 사업방법을 계속 혁신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에게 기사장동무가 한 말은 새길수록 깊은 여운을 안겨준다.

리영민

나이 어린, 어린 로동자들이 말할수 있게

